

## 通商弘報

### 1. 개요

통상홍보는 1950년 통상산업성 통상조사과에서 창간하여 해외시장조사회(1951년), 해외무역진흥회(1954), 일본무역진흥회(1984),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로 발행 기관이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발행되었다. 2004년부터는 웹버전을 발행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의 통상·무역정보원으로 대표되는 통상홍보는 일본무역진흥기구의 70여개 이상의 해외사무소에서 주재원들이 수집한 해외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통상홍보 웹버전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분야, 이용 방법,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정보제공분야

통상홍보의 정보제공 분야는 주정보원으로 각국 또는 지역별 기사를 제공하는 지역별 기사항목 이외에 투자비용 비교, 칼럼, 세계 정치경제 일정, 세계의 축제일, 통상공시, 관련정보 등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음 <표 1>과 같다.

항목	주요 내용
지역별 기사	북미, 중남미, 구주, 러시아·CIS지역, 중국·북아시아, 아시아·오세아니아, 중동·아프리카, 세계, 일본
투자비용 비교	각국의 임금, 지가·사무소임금 등, 통신비, 공공요금, 수송비, 환율, 세제 등을 비교
칼럼: 시점	해당지역의 전문가 시각으로 작성한 칼럼
세계 정치경제 일정	각국 및 지역의 정치·경제 일정
세계의 축제일	각국별 경축일 소개
통상공시	경제산업성이 발표하는 통상공시 기사
관련 정보	WTO/TBT속보, 무역투자제도, 세계비즈니스뉴스, 각국 관세율 등을 제공

<표 1> 하위 항목별 정보제공 분야

### 3. 이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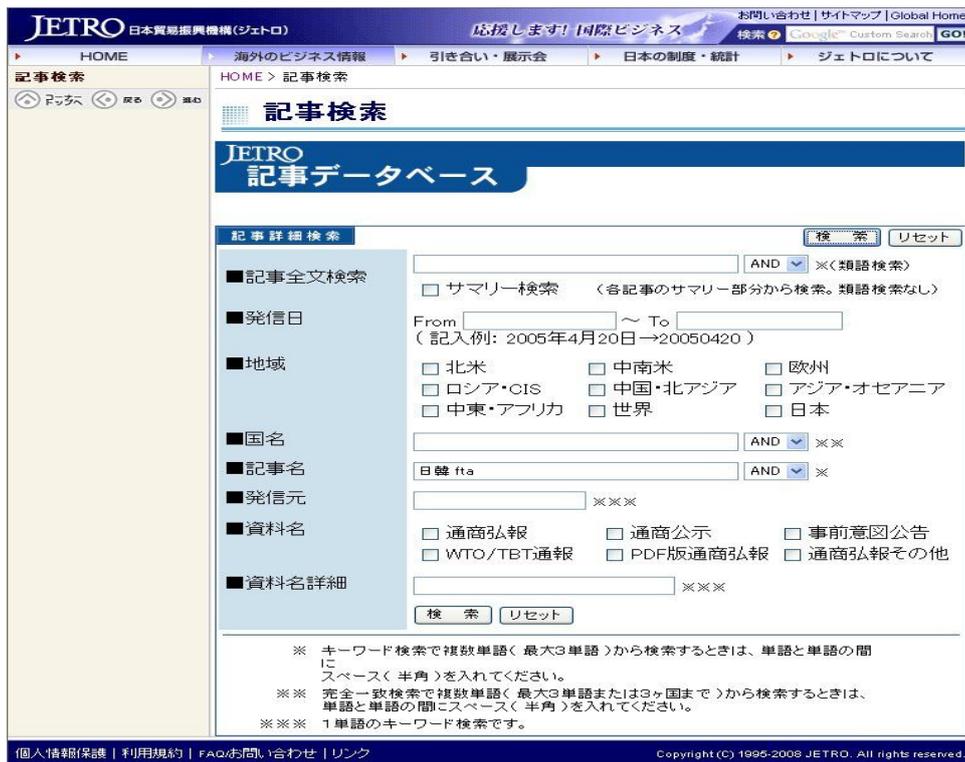
통상홍보의 이용 방법은 기존 책자형이나 웹버전으로 구독이 가능하다. 웹버전으로 구독할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http://www5.jetro.go.jp/jet-bin/pro1.cgi/kouhou.html>)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Password)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독시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독가격은 해외의 경우 연간 33,600엔, 6개월 16,800엔이며, 이는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메일을 통한 구독시에는 추가등록료 연간 7,440엔, 6개월 3,720엔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로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락처는 일본무역진흥기구 출판부 전화: 81-3-3582-3518, FAX: 81-3-3587-2485, 전자우편: [kouhou@jetro.go.jp](mailto:kouhou@jetro.go.jp) 이다.

통상홍보의 정보검색은 브라우저과 키워드 방식 두 가지로 구성하고 있다. 브라우저 방식은 하위항목에 따라 국가별, 지역별로 간단하게 메뉴에 따라 검색할 수 있다. 키워드 검색 방식에서 탐색 주제 “한일 FTA”에 관련된 검색은 먼저 <그림 1>과 같은 통상홍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사 상세 검색을 선택하여 <그림 2> 상세 검색 기사 입력화면에 키워드 “한일 FTA”를 입력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JETRO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HOME', '海外のビジネス情報', '引き合い・展示会', '日本の制度・統計', and 'JETROについて'. Below this is a search bar with '検索' and 'GO!' button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世界のビジネスニュース(通商弘報)'. There is a search box with '簡単検索' and '検索' buttons. Below the search box, there is a section for '新着記事' (New Articles) with a list of news items. The first item is '上海市08年賃上げガイドラインは平均11%(中国) 2008年05月02日'. The second item is '高付加価値品へのシフトが課題-1ドル6元台の衝撃(2)-(中国) 2008年05月02日'. There is also a section for '記事の要約を表示する' (Display article summaries) with a list of news items.

<그림 1> 통상홍보 홈페이지 초기 화면



<그림 2> 상세 검색 기사 입력 화면



<그림 3> 검색 결과 간략 화면

HOME > 海外のビジネス情報 > 世界のビジネスニュース(通商弘報) > 記事詳細

## 世界のビジネスニュース(通商弘報)

日刊 **通商弘報**  
ジェットロディリー
通商弘報は、ジェットロの海外事務所が収集した最新のビジネス情報を提供するサービスです。
印刷

---

**記事詳細**    **日韓FTAに高い期待－在韓日系企業・在日韓国系企業のアンケート調査－(韓国)**

2007年12月12日      ソウル発      添付ファイル: なし      475f4bc186167

ジェットロと大韓商工会議所などが共同で行った、双方に進出している日韓両国企業に対する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在韓日系企業の67%、在日韓国系企業の77%が、進出先での事業を拡大すると回答した。また、日韓自由貿易協定(FTA)締結については、ともに7割が賛成しており、輸入関税引き下げ、日韓間の物流拡大によるビジネスチャンス拡大への期待が大きい。

< 在韓日系企業と在日韓国系企業を対象に実施 >  
 ジェットロは、在韓日系企業と在日韓国系企業の事業環境や経営状況を比較するため、大韓商工会議所、ソウルジャパンクラブ(SJC: 在韓日系企業・日本人の団体)と共同で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した。

調査は、SJCに加入している在韓日系企業339社(有効回答数140社、有効回答率41.3%)、KOTRA海外進出企業リストに掲載されている在日韓国系企業350社(有効回答数151社、有効回答率43.1%)を対象に行った。アンケート回答企業の概要は表1のとおり。調査期間は07年11月14日から11月28日まで、調査方法は直接配布・Eメール・FAX・電話の併用による。

調査実施にあたっては、在韓日系企業については、SJCがアンケート票発送を、ジェットロ・ソウルセンターがアンケート票回収・集計を行った。他方、在日韓国系企業は、大韓商工会議所がアンケート票の発送・回収・集計を行った。

以下、主要な調査結果を紹介する。

**表1 回答企業の概要**

業種(複数回答)	在韓日系企業		在日韓国系企業	
	回答数	構成比(%)	回答数	構成比(%)
製造業	47	31.8	27	14.9
卸・小売り	40	27.0	6	3.3
建設	2	1.4	2	1.1
貿易	15	10.1	73	40.3
情報通信	1	0.7	20	11.0
金融	8	5.4	8	4.4
運輸	9	6.1	11	6.1
観光	1	0.7	10	5.5
その他	25	16.9	24	13.3
合計	148	100.0	181	100.0

<그림 4> 검색결과 상세 화면

<그림 3>은 <그림 2>에서 키워드를 입력하여 나타난 검색결과 간략 화면으로 11건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는 <그림 3>에서 첫 번째 기사를 선택하여 나타난 검색결과 상세 화면이다.

#### 4. 특징

통상홍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1) 세계 규모의 포괄적인 비즈니스 정보원으로 각국 및 지역별 비즈니스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 2) 일본무역진흥기구의 해외사무소 주재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전문성이 높다.

- 3) 통상홍보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조사보고서 등 각종 정보와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4) 지역별 해외사무소에서 정보를 1일 2회 제공함에 따라 기사의 갱신이 빠르다.
- 5) 정보제공 유형이 HTML, PDF, 메일 등으로 구성되어 이용자 접근성이 높다.
- 6) 정보검색은 브라우징,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어 편리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

## 5. 평가

통상홍보는 50년 이상의 축적된 기반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계 비즈니스 정보원으로 그 장점은 첫째, 세계 각국 및 지역별 비즈니스 정보자원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급변하는 세계의 무역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다. 셋째,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유형에 따라 HTML, PDF, 메일 등으로 다양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넷째, 기사 중심의 정보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연계된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첫째, 일부 관련 데이터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이용 가능하다. 둘째,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처리 기능이 없어 한국어 이용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번역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셋째, PDF 버전의 경우에는 단순히 책자형을 디지털 형식으로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타 정보원과 다양한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